

운동주 시 연구*

박 춘 덕**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미래 구축적 상상력과 자기반성 |
| 2. 고통으로서의 역사 인식 | 5. 마무리 |
| 3. 역사와 삶의 화해로서의 속죄양 의식 | |

1. 머리말

기독교가 이땅에 수용된 지 200여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 사상과 모랄은 이미 우리 민족의 정신사의 한 갈래로서 엄연히 자리잡았고, 우리 문학사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창가, 가사 등 개화기의 시가는 물론이고, 1920년대를 거쳐 운동주, 김현승, 박두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시의 전통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주요한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시문학사의 한 지류를 형성해온 기독교시의 흐름에 부응하여 기독교시에 대한 학계나 비평계의 관심 또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관심은 조운제, 백철 등이 피상적인 수준이나마 기독교시에 정신사적인 의미

* 이 논문은 2002년도 고신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고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를 부여한 초기연구 단계를 거쳐¹⁾ 각 시인들의 작품들을 분석하여 기독교 의식이나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하겠다.

특히 박이도의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 의식」²⁾과 신익호의 「한국 현대 기독교시의 연구」³⁾는 한국 기독교 시 연구를 한층 더 진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박이도는 위의 논문에서 개화기의 기독교 영향, 기독교 의식의 개념, 기독교문학의 가능성 등을 차례로 살핀 후, 윤동주의 원죄의식과 회생정신, 김현승의 고독과 신앙의 관계, 박두진의 밝음과 메시아 사상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 현대시의 전개과정을 문학사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은 결코 한국시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근대 이후 기독교의 영향권 속에 쓰여진 작품, 그 중에서도 기독교 의식으로 일관한 윤동주, 김현승, 박두진의 시를 통해 한국 기독교시의 가능성과 그 문학사적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한편, 신익호의 논문은 특히 기독교와 시와의 관계, 기독교시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 기독교 시문학사의 체계화 등에 관심을 두고 기독교 시문학의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윤동주 시에 대한 연구는 저항시나 순수 서정시나 하는 관점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작품 모두를 저항시로 평가하는 백철, 정한모 등의 연구와 저항시, 서정시, 신앙시로 각각 평가하는 김용직⁴⁾, 김윤식, 김홍규, 김우창⁵⁾, 신동욱의 연구, 그리고 순수 서정시로서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두는 임현영⁶⁾, 최동호⁷⁾의 연구들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40년대 암흑기에 살다간 시인 윤동주를 흔히들 일제에

1) 조연현, 『한국 현대 작가론』(청운출판사, 1965), pp.63~65.

2) 박이도,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종로서적, 1987)

3) 신익호,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4) 김용직, 「비극적 상황과 시의 길」,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문학세계사, 1981)

5) 김우창,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문학사상』 43호 (1976. 4)

6) 임현영, 「순수한 고뇌의 절규」, 『문학사상』 43호 (1976. 4)

7) 최동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물의 심상과 의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1.

저항한 민족 저항 시인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그의 시 작품 하나 하나의 문학성보다는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살다 갔느냐는 전기적 측면을 중시한 결과로서 그의 시적 개성은 물론 예술성까지도 어떤 고정된 역사적 틀에 못박아 버리는 근원적 오류의 소산으로 봐야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역사주의적 접근을 벗어나서 박이도는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에서 “창가, 가사 등 개화기의 시가는 물론, 그 후 20년, 30년대의 시를 거쳐 윤동주, 김현승, 박두진에 이르기까지 현대시의 정신으로서 이들 시에 照射된 기독교적 경험은 무시할 수 없다.”⁸⁾고 전제하여 기독교 정신이란 맥락에서 윤동주의 작품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사실, 한국 현대시사에서 기독교의 영향 관계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기독교가 한국 현대시 전개 과정에서, 혹은 시의 소재나 내용으로서 또한 정신사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실은 윤동주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일제말기의 암흑기 속에서 윤동주와 같은 지식인이 당대의 질곡의 역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응했는 가라는 물음과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윤동주시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신이 어떻게 수용되고 승화 발전되어 가는지를 고찰해 보고 나아가 한국 기독교시사에서 어떠한 위치에 점하는지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 고통으로서의 역사인식

윤동주는 북간도 개척기 시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 윤하현과 부친 윤영석은 북간도 명동교회의 실질적인 일을 이끌어 나가는 장로였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그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기독교는 윤동주의 생활과 가치관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익환은 <동주형의 추억>이란 글에서 “그와 나는 콧물 흘리는 어린 시절의 6년 동안을 함께 소학교에 다

8) 박이도,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 (종로서적, 1987), p.5

4 한국문학논총 제 31 집

니며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으로 뼈가 굵어 갔다”⁹⁾ 고 회고하고 있다. 1935년 윤동주는 평양 숭실중학교에 전입학하였고 1936년 숭실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관에 접수케 되자 용정으로 돌아와 광명중학교에 전입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윤동주의 민족심과 기독교 신앙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문익환은 이 당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주는 평양 숭실 학교에서 일어난 신사 참배 운동에 참가했다. 신사 참배 사건은 민족심과 기독교 신앙이 한꺼번에 짓밟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동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¹⁰⁾

이 당시는 윤동주의 시 年譜상으로 보면 시창작을 가장 왕성하게 했던 시기이며 이 때에 창작된 시는 <비둘기>, <離別>, <食券>, <牧丹峰에서>, <黃昏>, <가슴1>, <종달새>, <가을밤> 등 19편에 이르는데 이러한 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민족의식과 현실인식, 자아인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間 鷄舍 그 너머 蒼空이 깃들어
自由의 鄉土를 잊은 닭들이
시들은 生活을 주절대고
生産의 苦勞를 부르짖었다.
<닭> 1연 (1936, 봄)

꿈은 눈을 떴다.
그윽한 幽霧에서.

노래하는 종달이
도망쳐 날아가고,

지난날 봄타령하던
금잔디밭은 아니다.

塔은 무너졌다.

9)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73), p.214

10) 문익환, 『태초의 종말과 만남』, 『크리스찬 문학』 5집, 1973.

붉은 마음의 탑이 --

손톱으로 새긴 大理石塔이
하로저녁 暴風에 餘地없이도

오오 荒廢의 쑥발,
눈물과 목메임이여!

꿈은 깨어졌다.
塔은 무너졌다.

<꿈은 깨어지고> 전문 (1936.7)

이 두 시는 어둡고 암담한 현실의 인식과 답답한 심정을 자조적인 목소리로 들려 주고 있다. “하로저녁 폭풍”과 같은 현실에 의해 “손톱으로 새긴 대리석탑”으로 비유된 자신의 꿈이 허망하게 깨어지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고통과 좌절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독교의 목표가 되는 속죄, 구원, 부활 등의 기독교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이단계에서 자신의 신앙과 시 창작을 융합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 이후 1937년에는 15편의 시를 남기고 있는데, <黃昏이 바다가 되어>, <장>, <달밤>, <風景>, <寒暖計>, <그 女子>, <소나비>, <悲哀>, <冥想>, <바다>, <山峽의 午後>, <毘盧峰>, <窓>, <遺言> 등이 그것이다. 이 시기의 시들에서 윤동주는 비극적 현실 상황을 초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첫 航海하는 마음을 먹고
방바닥에 나딩구요... 덩구요...

<黃昏이 바다가 되어> 5연 (1937)

등의 시가 이 시기의 윤동주의 심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다. 이러한 현실적 고뇌를 벗어나려는 정신적 ‘항해’의 노력은 다음의 <寒暖計>에서 더욱 깊게 형상화되고 있다.

싸늘한 大理石 기둥에 모가지를

6 한국문학논총 제 31 집

비틀어맨 寒暖計.
문득 들여다 볼 수 있는 運命한
五尺六寸의 허리
가는 水銀柱,
마음은 琉璃管보다 맑소이다.

血管이 單調로와 神經質인 與論動物,
가끔 噴水같은 冷침을 억지로 삼키기에 精力을 浪費합니다.

霧下로 손가락질 할 수돌네 房처럼 추운 겨울보다
해바라기 滿發한 八月校庭이 理想꽃소이다.
피끓을 그날이 --

어제는 막 소낙비가 퍼붓더니 오늘은 좋은 날씨을시다.
동저고리 바람에 언덕으로, 숲으로 하시구려 --

이렇게 가만가만 혼자서 귓속이야기를 하였읍니다.
나는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

나는 아마도 眞實한 世紀의 季節을 따라
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을 뛰쳐 歷史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합니다.
<寒暖計> 전문 (1937.7)

이 시에 나타난 현실은 “霧下로 손가락질 할 수돌네 房”이며 ‘추운겨울’로 제시된다. 이는 가혹한 식민지 현실을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시적 화자는 자아와 현실의 갈등관계를 외부 기온에 민감한 한난계의 수은주를 매개로 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갈등관계는 특히 2연에서 시적 화자의 실존적 고통의 의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혈관이 단조로와 신경질인 여론동물”로 표현되고 있는 한난계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자아의 고통스런 모습이 암시되고 있다. 그리고 “가끔 분수같은 냉침을 억지로 삼키기에 정력을 낭비”하는 상태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아가 현실과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윤동주는 초기시에서부터 역사를 고통으로서,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으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통으로서의 역사인식은 화

자로 하여금 “해바라기 만발한 팔월교정” 같은 이상 세계를 꿈꾸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세계의 제시는 윤동주에게 있어서 단순한 현실초월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해바라기’의 실존적 상황은 “하늘만 보이는 울타리 안”을 뚫어나와서 “역사같은 포지션”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37년 7월에 쓰여진 위의 시에서는 아직 윤동주가 자신의 삶의 긴장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볼 때 윤동주의 신앙이 그의 시창작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그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8년 4월, 21세때 동주는 기독교 학교인 연희 전문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때 그는 또다시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가지게 된다. 이 당시를 문익환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에게도 신앙의 회의기가 있었다. 延壽시대가 그런 시기였던 것 같다. 그런데 그의 존재를 깊이 뒤흔드는 신앙의 회의기에도 그의 마음은 겉으로는 여전히 잔잔한 호수 같았다. 詩도 억지로 억하지 않았듯이 신앙도 성급히 따서 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라.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 곧 난대로 익어가든 시요, 신앙이었든 것 같다.¹¹⁾

위 글에서 지적된 윤동주의 연희전문대 시기라면 그가 동경 입교대학에 입학하기 전, 곧 1938년에서 1941년의 시기를 말한다. 이 3년 사이에 윤동주는 33편의 시편을 남겼는데, 대체로 이 때에 쓰여진 작품들이 오늘날까지 애송되고 있는 그의 대표작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시들을 연대순으로 보면, <異蹟>(1938.6), <自畫像>(1939.9), <八福>(1940), <새벽이 올 때까지>(1941.11), <또 다른 故郷>(1941.9) 등의 작품들이다. 이 시들 중에서 앞서 살펴본 윤동주의 역사인식-고통으로서의 역사관을 기독교적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품은 1940년에 쓰여진 <八福>이다. 이 시는 ‘마태복음 5장 3-12’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예수의 ‘山上垂訓’의 패로디가 되는데, 이러한 기독교 진리의 패로디를 통해서 우리는 윤동주의 역사관의 중요한 편린을 엿볼 수 있다.

11) 문익환, <동주형의 추억>,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p.221

- 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②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③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④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⑥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⑦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⑧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⑨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八福> 전문 (1940) (번호, 밑줄 : 필자)

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②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③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④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⑦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⑧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3-12원문> (번호, 밑줄 : 필자)

여기서 윤동주의 <八福>과 예수의 <八福>을 패로디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¹²⁾ 패로디란 다른 문학 양식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암시되는 기준(Canon)을 지니고 있다.¹³⁾ 또한 패로디는 한 텍스트를 가지로 다른 텍스트에 대한 암시적인 비판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⁴⁾ 곧 패로디는 풍자적 모방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상 텍스트로서의 <八福>의 의미는 윤동주 특유의 역사관-기준-에 의해 암시적으로 비

12) 이사라는 「윤동주 시의 기호학적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p.136에서 이 두 <팔복>의 관계를 기호내용(signifié)의 패로디로서가 아니라 기호표현(signifiant)의 구조적 인유(allusions)의 문제로서 상호텍스트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패로디와 상호텍스트성이란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13) Joseph A.Dane, 『Parody』(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88), p.4

14) Joseph A.Dane, 같은 책, 같은 면.

판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암시적 비판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대상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복의 조건 8가지가 윤동주의 <八福>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슬퍼하는 자는”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패로디적 전환의 사고에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복받을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이 윤동주의 시각에서는 하나같이 슬픔이라는 의미로 환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윤동주가 파악하는 역사란 궁극적으로 ‘슬픔’이라는 고통의 의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명제의 의미는 결국 지상의 삶에 만족을 누리 지 못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천상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내세의 복은 현세의 복과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내세의 복의 조건으로서 슬픔이 강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윤동주의 <八福>의 마지막 행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물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저희가 슬플 것이오”로 했다가 두 번째로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오”라고 수정했으며, 마지막에 “저희가 永遠히 슬플 것이오”라고 정착시켰다.¹⁵⁾ 이러한 시각은 이 시인이 고통으로서의 역사를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윤동주의 고통으로서의 역사관은 그 자체가 비극적이다. 고통으로서의 세계속에서는 존재 그 자체가 비극적인 세계가 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존재의 행위에 의해 비극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비극의 역사인 것이다.¹⁶⁾ 이제 남은 문제는 윤동주가 과연 이러한 고통으로서의 역사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15) 양왕용,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의 토착화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30집(한국문학회, 2002. 6) p.457

16) N.Frye, 『The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5)], pp.297-299참조. 윤동주의 이러한 비극으로서의 역사관은 기독교적 원죄의식과도 결부될 수 있다. 아담의 상황에서 시간은 타락과 함께 ‘시작한다’라는 사고가 깃들게 된다. 신에 의해 저주된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듯이 자연의 저주와 생존을 위한 노동 그리고 흠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의 허망함과 에덴추방이라는 근원적 고통 속에서 파악된다.

나는 것이 될 것이다.

3. 역사와 삶의 화해로서의 속죄양 의식

운동주가 역사를 고통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태도는 단순히 역사의식의 차원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고통으로서의 역사 인식에는 기독교적 원죄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확인하게 해주는 시는 다음의 시다.

봄날 아침도 아니고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날 아침도 아닌 아침에

빨-간 꽃이 피어났네,
햇빛이 푸른데,

그 前날 밤에
그 前날 밤에
모든 것이 마련되었네.

사랑은 뱀과 함께
毒은 어린 꽃과 함께
〈太初의 아침〉 전문 (1941)

이 시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사역에서 시적 모티브를 얻고 있다. 제 1연은 자연의 순환성을 초월한 신의 아침, 즉 절대자의 아침이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뒤 마지막 이렛째 되던 그 휴식의 날 아침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제 2연에서 '하나님의 아침'에 "빨간 꽃이 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빨간 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의미하며 '빨간'색으로 '죄'를 상징한다. 즉 인간의 원죄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이 시는 선과 악이 서로 대립되도록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 즉 기독교의 '예정설'을 기저의 심상으로 삼고 있다.

기독교의 예정설이란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의 신화에게서 시작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두 사람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된다.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의 상대적 개념을 알게 되고, 육체적 본성과 쾌락에 눈을 뜨므로써 이브는 해산의 수고를 겪게 되고 아담은 힘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인간의 원죄가 제 3연에서 말했듯이 “그 전날 밤”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숙명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성경적 주제가 그의 시로 재인식되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윤동주의 재인식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기독교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원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윤동주는 이 시를 통해 기독교적 원죄의식을 받아들이고 재인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시는 기독교의 원죄의식이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윤동주는 또한 이 시를 통하여 지금 그가 처한 시대상황, 곧 고통으로서의 역사도 인간의 원죄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적 원죄의식에서 비롯되는 윤동주의 고통으로서의 역사인식은 시인으로 하여금 역사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해결하느냐는 문제로 진행된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의 하나로서는 철저히 현실 갈등을 무화시키고 신의 의지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신앙의 차원을 들 수 있다.

다음 시를 보기로 하자.

발에 터분한 것을 다 빼어 버리고
黃昏이 湖水 우로 걸어 오듯이
나도 사뿐사뿐 걸어 보리이까?

내사 이 湖水 가로
부르는 이 없이
불리워 온 것은
참말 異蹟이외다.

오늘 따라
戀情, 自德, 猜忌, 이것들이
자꼬 金메달처럼 만져지는구려

하나, 내 모든 것을 餘念없이
물결에 씻어 보내려니
당신은 湖面으로 나를 불러 내소서.
〈異蹟〉 전문 (1938)

이 시는 예수가 새벽 바다 위를 맨발로 걸어간 기적의 내용¹⁷⁾ 그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물위를 걸어 가다가 풍랑에 빠진 사건과 예수가 풍랑을 잔잔하게 한 또 하나의 기적¹⁸⁾을 시의 배면에 깔고 있다.

그런데 이 시의 특성은 자아와 현실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내적 갈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제 3연 “오늘 따라 / 연정, 자홀, 시기, 이것들이 / 자꼬 금메달처럼 만져지는구려”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이 자신의 삶과 행동의 판단 주체가 되는 ‘연정, 자홀, 시기’의 감정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중심적 사고는 제 4연에 가서 “내 모든 것을 여념없이 / 물결에 씻어” 내겠다는 결단에 의해 이내 지양되면서 전적으로 신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위의 시는 현실적 갈등이 믿음에 의해 즉각적으로 지양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삶과 신앙의 역동적 긴장이 부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삶의 갈등이 절대적인 신앙의 태도에 의해 무화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운동주의 시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면서도 운동주의 사고의 특성을 잘 암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운동주의 시적 사고에 있어서 현실에서 빚어지는 내적·외적 갈등은 궁극적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서 궁극적인 본질인 신에 의해 지양되어야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으로서의 역사 속에서 운동주가 추구하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삶의 갈등의 수직적 초월이 아니라 속죄양 의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쫓아오던 햇빛인데

17) 마태복음 14:22-33, 마가복음 6:45-52.

18) 마태복음 8:23-27.

지금 敎會堂 꼭대기
十字架에 걸리었습니다.

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鐘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던 사나이,
幸福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十字架가 許諾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十字架> 전문 (1941)

이 시는 윤동주가 그의 시세계에 나타나는 삶과 신앙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갈등에서 화해로 바뀌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인다. 점층기법에 의해 시각적 원근법으로 점점 축소되어 가는 옹축구조를 지닌 이 시의 주제는 십자가로의 상승지향성을 보여준다. 제 1연에서 ‘햇빛’은 기독교적인 진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햇빛’은 고통으로서의 역사를 살아가는 시인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기독교적 진리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기독교인이 그에게 요청하는 진리의 삶이란 매우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진리에의 두려움은 “쫓아오던”이라는 관형어에 표현되어 있다. 신의 명령에 준행해야만 하는 기독교인이자 마는 막상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두려워하는 태도가 바로 “쫓아오던 햇빛”이라는 표현 속에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을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기독교적 진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은 “쫓아오던 햇빛”이 “십자가에 걸려” 있다는 표현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¹⁹⁾

제 2연은 바로 기독교 진리로서의 십자가에 대한 시인의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거리를 보여준다. “침탑이 저렇게도 높는데 /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는 표현은 십자가의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뇌와 절망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저렇게도’라는 부사어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는 표현과 결부되면서 절대적인 불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기까지 그의 삶과 신앙은 화해되지 못한 채 대립된 상태로 맞서 있는 것이다.

제 3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삶과 신앙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 양자는 이 제 3연의 단계에서도 서로 화해되지 못한 채 단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시인은 단지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릴 수 밖에 없다.²⁰⁾ 기독교의 십자가의 진리를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향을 상실한 자유다.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의미있는 일을 추구하지 못하고 마냥 서성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²¹⁾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삶과 신앙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를 시도하기 위한 결단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만큼 십자가의 속죄양의 고통은 두렵고 혹독한 것이기 때문인데, 이 점은 제 4연에서 나타나게 된다. “괴로웠던 사나이”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십자가의 속죄양의 이중적 의미가 드러난다. ‘괴로웠던’

19) 박두진의 시세계에서 ‘해’가 ‘인간화해와 인간구원’의 상징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윤동주의 시들에서 ‘해’가 그 자신의 삶에 강요되는 기독교적 진리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볼 수 있게 된다. 박두진의 경우 자연계시적 신이해의 측면에서 ‘해’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있다면 윤동주의 경우 ‘해’는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인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소명의식을 강요하는 신의 요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해’ 이미지의 이러한 차이는 바로 이 두 시인이 지니고 있는 삶과 신앙의 상관 관계의 차이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20) 여기서 ‘종소리’는 지상과 천상의 중간에서 인간의 더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소망을 말해주는 호출 신호가 된다. 이사라, 같은글, p.144

21) 이진청은 이 2연에 대해 “당시 궁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자신의 미흡함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진청, 『윤동주 시와 별과 자화상, 초월의 의지』,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문학세계사, 1981), p.79

이라는 표현은 인성을 지닌 예수의 측면에서의 가치 판단이다.²²⁾ 그만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신의 의지를 수락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한다는 의미에서는 ‘행복한’ 것이 된다.²³⁾

이처럼 제 4연에서 십자가의 진리가 ‘괴로웠던’이라는 부정적 의미에서 ‘행복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전도되면서 화자는 “십자가가 허락된다면”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제 4연에 와서는 제 1.2.3연에서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거부가 수락으로 바뀌면서 삶과 신앙의 긴장이 역동적으로 화해의 단계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신에게 자신의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속죄의 수행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화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자신 또한 고통으로서의 역사를 속죄양 의식에 의해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고 있다. “꽃처럼 피어나는 피”는 고통의 현실을 자신의 속명으로 수락하면서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삶의 길을 희생적으로 걸어가 고자 하는 순결하고도 희생적인 삶에의 결단을 의미한다.²⁴⁾

22) 이사라는 이 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지상의 기호체제로 파악할 때에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일생을 살다 죽어야 했던 한 사나이면서도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로써 지상의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 지상에 온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한 매개적 존재”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사라, 같은 글, p.144

23) 여기서 ‘속죄’란 본래 타인에게 끼친 물적·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신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는 것이 곧 신에 대한 참해이므로 그 보상을 속죄라고 부른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신을 배반한 후, 인류는 그 속죄를 충분히 하지 못했으므로 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됨으로써 그 속죄를 해 주었다. 그런데 신은 우리들 인간에게도 인간 의무의 수행, 애덕(愛德)행위, 기도, 극기, 고난을 참아내는 등으로써 그리스도와 더불어 속죄의 수행을 요구한다. 인간은 이 자발적인 속죄에 의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속(救贖)의 조건을 이루게 되어 지옥의 영원한 벌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속죄행위는 은총의 효과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한다. 『철학대사전』 (학원사, 1970), p.579 참조

24) 이러한 숭고한 희생에의 결단은 예수와의 합일의 경지에 이름으로써 기독교인

속죄란 구약성경에서 “죄를 속하여 줌”, “죄를 씻어줌”의 의미를 갖는다. 이 속죄를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죄값, 보상, 화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속죄의 과정은 죄지은 사람이 소(수컷)나 양의 흠없는 번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와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게 하고 그리하여 열납되어 그를 위해 속죄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속죄는 죄를 씻음, 없이함을 말하며 이것은 생명의 값, 대가를 치루는 것이다. 죄를 씻는 의미에서, ‘카파르’는 정결작업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 설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다.-를 얻게 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룸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속죄양의 조건은 ‘흠없는’제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흠없는’ 속죄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인간이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²⁵⁾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²⁶⁾

윤동주는 이처럼 여기에 와서 자신의 삶과 신앙의 긴장을 해결한다. 이 해결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수락하는 것인 동시에 속죄양 의식 속에서 역사를 감당해 나가려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새로운 각성이다.²⁷⁾ 이 각성은 일회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끊임없는 자기 각성이며, 반성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으로서 영생을 얻는 것이며,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의 일상을 떠나 영원성을 획득하는 일이 된다고 설명된다. /이해웅, 「윤동주의 자학과 대표의식」(시와 의식, 1984. 가을호), pp.278~279

25) 히브리서 10:10

26) 『왜마 주제별 종합 자료사전』(성서연구사, 1991), pp.480~508 참조

27) 이러한 희생제의의 모방은 윤동주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성찬의 식의 차원이며, 또 하나는 유화(有和)의식의 차원이다. 전자의 차원에서 윤동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되며, 후자의 차원에서 그는 신이 인간의 원죄에 대해 보내고 있는 노여움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N.Frye 앞의 책, pp.299~300

4. 미래 구속적 상상력과 자기 반성

삶과 신앙의 역동적 긴장 구조 속에서, 윤동주가 희생양 의식에 의해 양자를 화해할 때 윤동주의 시에는 고통으로서의 역사를 희생양 의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준열한 자기반성의 계기가 지속된다. 이 자기반성이란 삶과 역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정신에 의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진지함의 태도의 결과로서, 끊임없이 나약해지고 왜소해지려는 자기 자신을 기독교 진리 안에서 재정립하는 자기옹시를 의미한다. 기독교적으로는 회개라는 용어에 포괄될 수 있을 이 자기반성의 시적 상상력은 신 앞에서 자아를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속죄로 표현될 수도 있을 그의 자기 반성은 인격적인 마음의 변화로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면제받기 위한 부끄러움의 미학이 된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표출시킴으로써 자신이 지켜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순결한 신념을 표방하고 자기 인식, 자기 성찰을 시의 내면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²⁸⁾ 이러한 끊임없는 준열한 자기반성은 애송되고 있는 <서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일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序詩> 전문 (1941. 11.)

28) 정호승, 「윤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경희대 대학원, 1985), p.36 참조. 윤동주의 시에 나타나는 '부끄러움'의 의미는 크게 봐서 기독교적 윤리의식과 속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시대적 상황에서 오는 도덕적 지조나 양심에서 오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다르게 해석된다. 본고는 전자가 후자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정신 세계를 연상시킨다. 윤동주는 이 시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모범으로 상정하여 다시한번 자신의 삶에 대한 준엄한 정신적 결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의 구현을 시인의 소명의식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보인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란 표현은 준엄한 자기반성이다. 이 ‘부끄럼’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 앞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의 과정이다. 그러기에 “하늘을 우러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는 태도는 천상적 질서에 대한 지향이면서 순결한 삶에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⁹⁾ ‘하늘’은 신을 의미하며, 그 신을 경외하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종교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윤동주는 또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전반부에서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속죄의식을 전제하고서,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만큼 신 앞에 선 인간으로서 경건하고 성결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³⁰⁾ 그리고 그는 제 6행에서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통해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한다.

‘죽어가는 것’이란 기독교적으로 세상의 죄악에 오염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그 ‘죽어가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十字架>에서 윤동주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고 자신도 그런 희생적 죽음을 마다 않겠음을 맹세하였다. <十字架>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 길을 따르려는 의식의 결과로 나타난 반면에 <序詩>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가는’ 인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표상을 통하여 윤동주 자신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삶의 모방으로 나타난다.³¹⁾ 이러한 윤동주의

29) 김재홍, 「자기 극복과 초인애의 길」, 『현대시』(1984년 여름호), p.225

30) 마광수, 『윤동주 연구』(정음사, 1984), p.117에서는 제 2연의 ‘바람’은 괴로움과 관련되며, 제 5연의 ‘바람’은 자유와 회귀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31) 김주연은 5~6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삶보다 죽

기독교적 속죄의식과 준엄한 정신적 결의는 또 다른 작품 <참회록>에서도 볼 수 있다.

파란 녹이 긴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王朝의 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滿二十四年一個月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懺悔錄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懺悔錄> 전문 (1942)

위의 시에서는 고통으로서의 역사 속에서 윤동주가 택하는 삶의 방향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 1연은 “파란 녹이 긴 구리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고통스럽고도 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리 거울’ 속에서의 자기 얼굴을 응시하는 행위는 역사의 고통 속에서 일그러진 자아의 모습의 발견이다. 이처럼 그에게 역사란 수치스럽고도 굴욕스러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는 역사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제 2연에서는 이런 죄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반성적 행위로서 “참회의

음이 더욱 보람스럽다는 무서운 선택이 그러나 매우 조용하고 잔잔하게 나타난다. 기독교 정신의 은밀한 현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야말로 영생에의 믿음을 통한 수락 이외에 아무 것일 수 없다.” 김주연, 『현대문학과 기독교』(문학과지성사, 1984), p.113

글”을 쓰고자 한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애 동안 자신이 이 고통으로서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가치-‘기쁨’-를 발견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자괴와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 행위는 결코 일회적일 수 없다. 제 3연에서도 나타나듯이 그건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까지도 지속되어야 할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좀더 주위 깊게 보면 제 2연의 ‘참회’와 제 3연의 ‘참회록’의 의미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제 2연의 ‘참회’는 고통스러운 역사적 삶 그 자체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지만, 제 3연의 ‘참회록’의 내용은 오히려 그에 모순되는 것이다. 즉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라는 부분에서도 나타나듯이 제 2연의 ‘참회’에 대한 ‘참회’라는 의미를 그것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 2연의 ‘참회’가 식민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이라면, 제 3연의 ‘참회록’은 그 식민지적 질곡에서 벗어난 어떤 시기-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이루어질 지식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다면 윤동주는 여기서 미래의 관점에서 자신의 ‘참회’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역사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4연에서는 이러한 완성행위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행위 속에서 결국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은 제 5연에 나타나듯이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다. 결국 윤동주에게 역사란 고통이자 슬픔이다. 그의 시적 사유의 지평에는 기독교 세계관 특유의 소망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의 고통을 준열한 자기반성과 희생양 의식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삶의 표지는 의지적 슬픔, 즉 “슬픈 사람의 뒷모양”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다.

시체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시에서 윤동주는 미래구속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3연 2행의 “써야한다”라는 현재형은 첫 행의 부사-“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와 올바르게 호응하려면 “써야 할 것이다”라는 미래로 되어야만 했다. 마지막 연의 “나타나온다”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면’이라는 접속부사는 원인에 대한 결과, 즉 미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²⁾

이러한 시제상의 착오 효과는 윤동주의 미래구속적 상상력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시인은 상상적으로 미래의 한 시점에서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라는 표현 또한 이러한 미래 구속적 상상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거울에 ‘뒷모양’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이 ‘뒷모양’은 역시 먼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자신이 삶을 조망하는 자리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³³⁾

이러한 미래 구속적 상상력은 기독교의 미래지향적 내세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동주는 이러한 미래 구속적 관점에서 서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삶을 부단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는 역사의식과 복음의식과도 연관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5. 마무리

이상으로 윤동주의 시세계를 삶과 신앙의 상관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그는 역사를 고통으로서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고통으로서의 역사관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전기적 삶과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팔복>등의 시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그의 역사관은 삶과 신앙의 상관성의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여기에는 기독교적 문제해결 방식이 요청된다.

이 문제를 윤동주는 기독교의 속죄양 의식을 통해서 지양한다. 고통스러운 역사를 정면으로 수용하여 희생적인 역사적 삶을 살기를 결단함으로써 윤동주는 삶의 모순을 신앙의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양으로서의 역사적 삶을 진지하게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써

32) 김준오, 『시론』(문장, 1981), p.171

33) Paul Hernadi, 『Beyond Genre』[김준오역, 장르론(문장, 1983)], p.47참조. 하이데거는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로 먼저 달려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나 과거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본래적인 이해라고 파악했다. 즉 미래가 현재나 과거의 의미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윤동주는 미래구속적 상상력 속에서 자신의 현실의 삶을 반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윤동주에게 있어서 시를 쓴다는 것은 고통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를 모색하고 실현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가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계획하는 것인 반면, 역사란 인간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상적인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진정한 힘들을 보여주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진정한 가능성을 그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⁴⁾ 다시말해서 윤동주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당대에게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이상적 가치를 통해 추구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의 글쓰기를 통해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기독교, 역사관(인식), 고통, 신앙, 십자가, 갈등, 속죄양, 자기반성, 화해, 원죄의식

참고문헌

1. 자 료

- 『성경전서』(대한성서공회, 1991)
- 『쉐마 주제별 종합자료사전』(성서연구사, 1991)
- 『철학대사전』(학원사, 1970)
- 『한국문학사전』(문원각, 1973)
-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정음사, 1980)

2. 저서 및 논문

- 김용직, 「비극적 상황과 시의 길」,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문학세계사,

34) Hayden White, 『Metahistory』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p.201

1981)

- 김우창,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문학사상』 43호(1976. 4)
- 김재홍, 「자기극복과 초인애의 길」, 『현대시』(1984년 여름호)
- 김주연, 『현대문학과 기독교』(문학과지성사, 1984)
- 김준오, 『시론』(문장, 1981)
- 마광수, 『윤동주 연구』(정음사, 1984)
- 문익환, 「동주형의 추억」,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문익환, 「태초의 종말과 만남」, 『크리스찬 문학』5집, 1973
- 박이도,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종로서적, 1987)
- 신익호, 「한국 현대 기독교시 연구」(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양왕용,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의 토착화 양상」, 『한국 문학 논총』 제30집(한국문학회, 2002. 6)
- 이진청, 「윤동주 시와 별과 자화상, 초월애의 의지」,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문학세계사, 1981)
- 이사라, 「윤동주 시의 기호학적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이해웅, 「윤동주의 자학과 대표의식」, 『문학사상』 43호(1976. 4)
- 임현영, 「순수한 고뇌의 절규」, 『문학사상』 43호(1976. 4)
- 정호승, 「윤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경희대 대학원, 1985)
- 조연현, 『한국 현대 작가론』(청운출판사, 1965)
- 최동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물의 심상과 의식 연구」(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81)

3. 외국 저서

- Hayden White, 『Metahistory』(Baltimore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 Joseph A. Dane, 『Parody』(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88)
- N.Frye, 『The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한길사, 1985)]
- Paul Hernadi, 『Beyond Genre』 [김준오 역, 장르론(문장, 1983)]

Abstract

A Study on Yun Dong-Joo's poems

Park, Chun-Deuk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ife and faith of poetry world from the viewpoint of relativity. First of all, poet Yun showed an attitude of recognizing history as a suffering. The viewpoint such as regarding history as suffering can be connected with the biographical life of colonial elite, and was distinct in several poems of his like 《The Beatitudes》. His historical view when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relativity between life and faith is a problem that should be solved in the Christian method.

Poet Yun Dong-Joo seeks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the Christian ceremony of sacrificial lamb. Yun tries to overcome contradiction of life in the dimension of Christian faith by confronting history of suffering and by determining the life of sacrificial history. As an effort to continue to live historical life seriously as a sacrificial lamb, Yun Dong-Joo proved to show reflection of his present life in the imagination of future redemption.

Accordingly, to Yun Dong-Joo poem-writing has the meaning of discovering and realizing a true Christian value. It is because while poetry pursues and plans ideal things, history tells the truth about human problems, showing real strength facing in an attempt to realize ideal things, and describing true possibility of future society. In other words, Yun Dong-Joo through his poem-writing is considered to have shown his intention that pursues and plans present problems which he as a colonial elite faced through Christian ideal value.